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2012. 5

Manna of Choonghyun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열왕기하 · 요한계시록
구역예배 · 대학청년부 GBS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그리스도인의 삶

● Contents

9	매일성경묵상 열왕기하 5장 ~ 열왕기하 9장
16	1과 어린 양을 먹다
24	매일성경묵상 열왕기하 10장 ~ 열왕기하 15장
32	2과 하갈아, 무슨 일이나?
40	매일성경묵상 열왕기하 16장 ~ 열왕기하 21장
48	3과 하나님의 백성
56	매일성경묵상 요한계시록 1장 ~ 요한계시록 6장
64	4과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
72	매일성경묵상 요한계시록 7장 ~ 요한계시록 10장

『중현의 만나』는

가정예배 · 구역예배 · 대약장년부 GBS를 돕기 위해 중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5 May 2012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열왕기하 5장	2 열왕기하 6장
6 제4차 성찬식 어린이 • 어버이주일 (가족연합예배)	7 열왕기하 10장	8 열왕기하 11장	9 열왕기하 12장
13	14 열왕기하 16장	15 열왕기하 17장	16 열왕기하 18장
20	21 요한계시록 1장	22 요한계시록 2장	23 요한계시록 3장
27 성령강림주일(오순절)	28 요한계시록 7장	29 요한계시록 8장	30 요한계시록 9장

June

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 열왕기하 7장

4 열왕기하 8장

5 열왕기하 9장

10 열왕기하 13장

11 열왕기하 14장

12 열왕기하 15장

17 열왕기하 19장

18 열왕기하 20장

19 열왕기하 21장

24 요한계시록 4장

25 요한계시록 5장

26 요한계시록 6장

31 요한계시록 10장

교회 주요일정

5월 6일

제4차 성찬식

어린이 • 어버이주일(가족연합예배)

5월 27일

성령강림주일(오순절)

나의 주요일정

- 1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 2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에 사로잡힌 후임 당회장이 청빙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3 충현교회에 주신 5대 목표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 4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5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 6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2차, 6월 4일~6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소서.
- 7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8 충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양로원 및 함양충현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 9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이 믿음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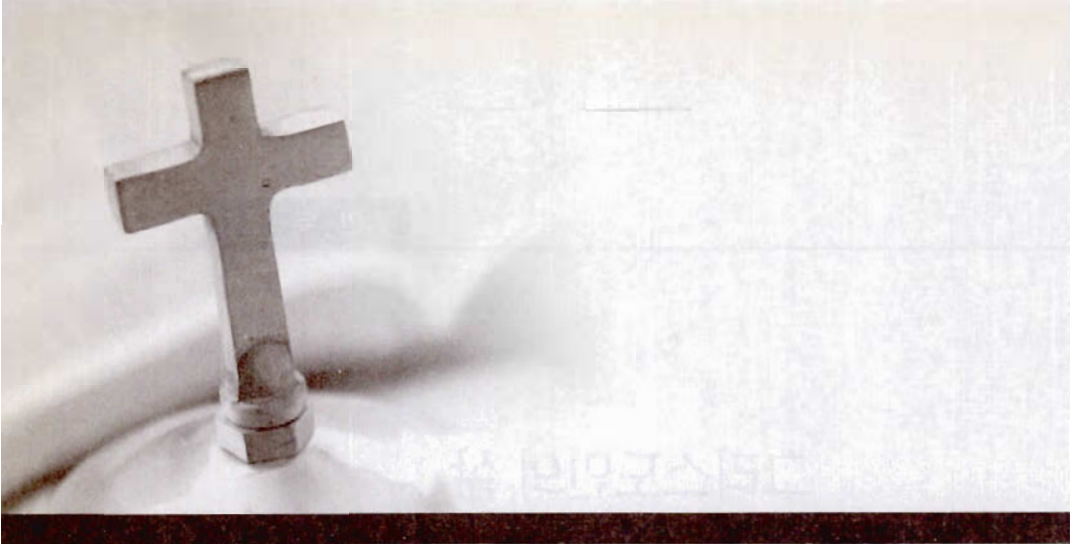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 순간 기억할 때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안위와 형통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을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한걸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12년 5월을 맞이하여 위일목사 김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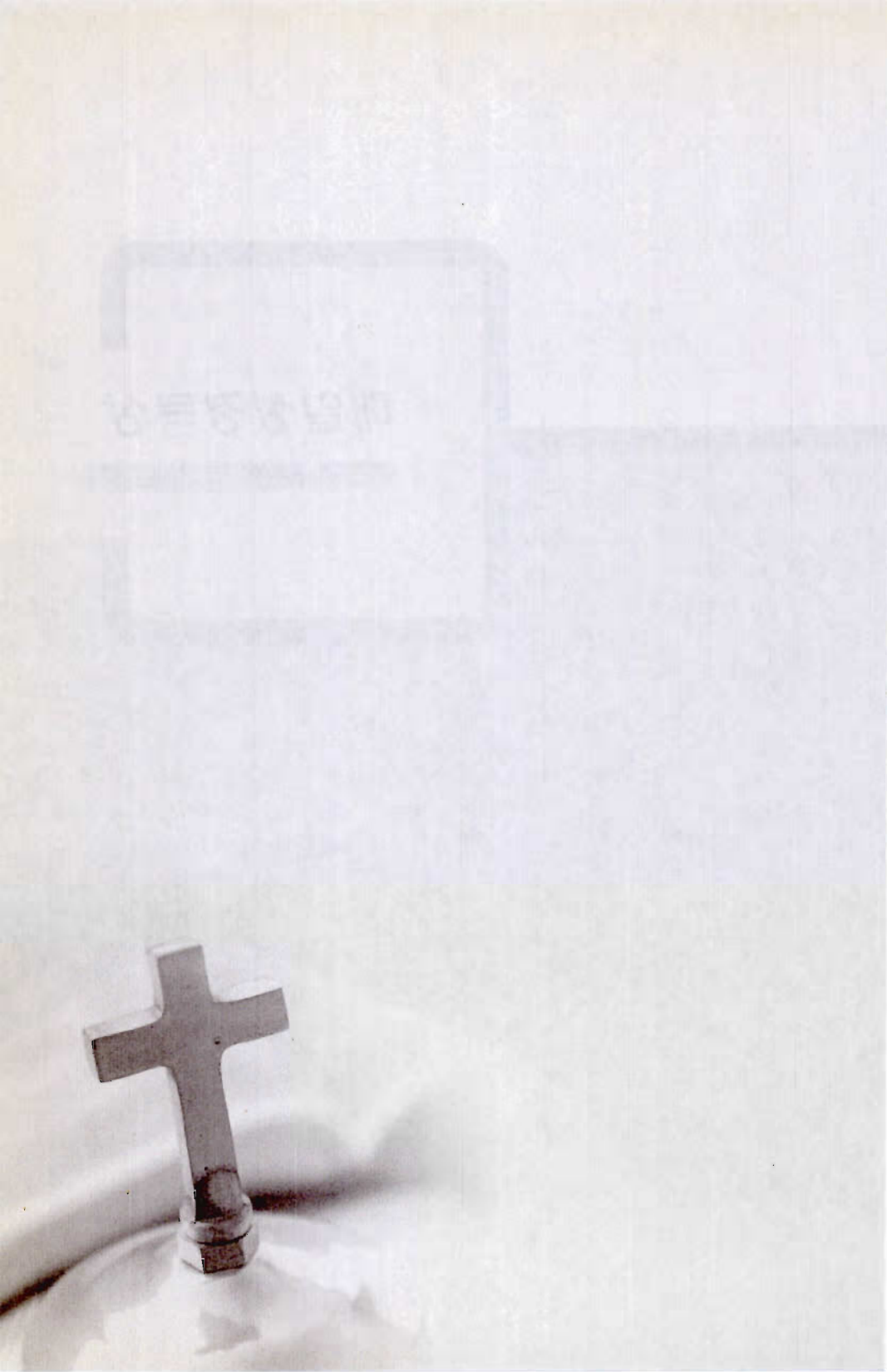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매일성경묵상

가정예배·구역예배·대학청년부 GBS

HOLY BIBLE



내 생각에는

1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 온 어린 소녀가 나병환자 나아만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1~4절). 이에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가고, 그가 거창한 방법으로 자신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으나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말뿐인 것에 노하여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종들의 만류로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따랐고, 그의 몸은 깨끗하여졌습니다(9~14절). 나아만은 나병이 낫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찬양하며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를 사양하고, 사환 게하시가 예물에 욕심 내어 몰래 받아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15~27절).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영접한 것은 엘리사의 종이었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정성을 들이는 것과 같은 행동은 전혀 없이 그저 요단 강에 몸을 씻으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나아만과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자신의 권리만 찾는 모습,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모습이 나아만과 같습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충고로 인해 자신이 군대장관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나병환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지위나 역할, 자신의 생각이 아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진실로 순종할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대(왕하 5:11)

But Naaman went away angry and said, "I thought that he would surely come out to me and stand and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wave his hand over the spot and cure me of my leprosy. (2kgs. 5:11)

열왕기하 5장
산송가 420장

독/상/노/트

• 아바나(12절) : 이 강은 오늘날의 '바라다 강'으로 제베다니 남쪽 고원에서 발원하여 다메섹 성읍까지 흐른다.

기도제목

①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독해 컨퍼런스(2차, 6월 4일~6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절망의 상황이 없다면

열왕기하 6장
찬송가 272장

목/상/노/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아람 왕의 계획을 엘리사를 통해 무산시키셨습니다(8~10절). 아람 왕은 자신들이 계속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가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많은 군사들을 보내 그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포위합니다(11~14절).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오히려 아람 군대를 영원히 이스라엘에서 쫓아내십니다(15~23절). 주전 850년경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백성들은 기근에 지친 나머지 나귀머리와 비둘기 똥 등 부정한 음식을 먹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잡아먹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24~33절).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주하는 처소가 좁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두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도끼를 그만 물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해서 도끼를 찾아 주었습니다(1~7절). 만약 도끼가 물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이 없이 평탄하게 나무를 베서 처소를 만드는 일은 진행이 되었겠지만 탄식과 절망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도우심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탄식과 절망의 상황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도우심을 알기는커녕 아예 잊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을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이때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회임을 알고 더욱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 거주하는 이 곳(1절) : 선지자 학교는 길갈과 벳엘과 여러 곳에 있었다. 그런데 길갈과 벳엘은 요단 강에서 매우 먼 거리에 있었으므로, 이곳은 여러곳을 가리킨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베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려 온 것이니이다 하니(왕하 6:5)

As one of them was cutting down a tree, the iron axhead fell into the water. "Oh, my lord," he cried out, "it was borrowed!" (2kgs. 6:5)

기도제목

① 절망의 상황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부어 주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하나님의 말씀대로

3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벤하닷의 아람 군대는 강력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이 굶어 죽는 일만 남은 듯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으로 일할 것을 예언하십니다(1~3절). 성문 어귀에 있던 나병환자들이 굶주림을 모면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미 아람 군대가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도망친 후였습니다(4~8절). 나병환자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하여 의복과 병기 등을 얻게 되었습니다(9~16절). 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왕의 한 장관은 엘리사의 말대로 죽고 말았습니다(17~20절).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이다”(1절)로 시작을 해서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되었고”(16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17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20절)라는 말씀들을 보면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에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만 말씀을 이루고자 하실 뿐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내가 사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사는 길을 순종하며 가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말씀에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바른 신자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이뤄지는 것보다는 나의 꿈과 계획이 이뤄지기를 더 갈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와 말씀과 같이 되었고(왕하 7:16)

Then the people went out and plundered the camp of the Arameans. So a seah of flour sold for a shekel, and two seahs of barley sold for a shekel, as the LORD had said. (2Kgs. 7:16)

열왕기하 7장
찬송가 202장

목/상/노/트

• 스아(1셀) : 곡물의 양을 재는 단위로, 1스아는 1/3에 바이며, 약 7.3L이다.

기도제목

기도노트

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붙들린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4

관심의 대상이 다르다

열왕기하 8장

찬송가 452장

목/창/노/트

엘리사는 전에 죽은 아들을 살려 준 수넴 여인에게 이스라엘에 칠 년 동안의 기근이 임하니 피하였다가 다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블레셋의 땅에서 칠 년을 지내고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자신의 집과 전토를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왕은 모든 일을 들은 후에 그녀의 땅을 모두 되돌려 줍니다(1~6절). 아람 왕 벤하닷이 병이 들자 신하인 하사엘에게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합니다. 이에 엘리사를 찾아간 하사엘에게 엘리사는 뜻밖에도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후 하사엘은 궁으로 돌아가 벤하닷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아람의 왕이 됩니다(7~15절). 한편 유다 왕 여호람은 아합의 딸과 결혼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장사되었으며, 뒤를 이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지만 그도 악을 행했습니다(16~29절).

아람 왕 벤하닷은 병이 들자 엘리사에게 자신의 신하를 보냅니다. 왕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병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벤하닷은 오직 자기의 병에만 관심을 두고 엘리사를 찾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기대와 예상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벤하닷이 엘리사를 찾는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사는 우리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스라엘(29절)** :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셨다”는 뜻이다. 이곳에 왕의 별궁이 있었다. 길르앗 라못에서 사마리아까지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요람 왕은 이스라엘 별궁에서 치료를 받았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왕하 8:8)

he said to Hazeal, “Take a gift with you and go to meet the man of God. Consult the LORD through him; ask him, ‘Will I recover from this illness?’” (2kgs. 8:8)

기도제목

①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닌,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천양대와 오게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예후의 사명

5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합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해 세우신 도구였습니다(1~10절). 무리는 여호와와 기름 부으심을 받아들이고 예후를 왕으로 삼습니다(11~13절). 엘리사와 군대장관들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예후는 길르앗 라못에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는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들인 요람 왕과 요람을 병문안 온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예후에 의해 살해됩니다(14~29절). 예후의 칼은 여가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세벨을 쳐서 개들의 밥이 되게 합니다(30~37절).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예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름부음에는 하나님의 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부음 받은 자가 관심을 둘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자신의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야말로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시는, 기름부음 받은 신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후를 세워 아합의 집을 멸망시킴으로써 아합과 함께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후 역시 죄 된 존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복음을 증언하며 왕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와 종들의 피를 이 세벨에게 갚아 주리라(왕하 9:7)

You are to destroy the house of Ahab your master, and I will avenge the blood of my servants the prophets and the blood of all the LORD's servants shed by Jezebel. (2kgs. 9:7)

열왕기하 9장
찬송가 323장

목/상/노/트

• **섬독 위(13절)** : 계단 중 계를 가리킨다. 그들은 계 위에 자기들의 겹옷을 깔고, 예후를 맨 윗층계에 앉혀서 실제로 왕처럼 대했다.

기도제목

① 세상의 일에 눈을 돌리지 말고,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관심을 두며 왕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②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나는 할머니다”

나는 손자, 손녀를 가진 비교적 젊은 할머니이다. 어느 날 불현듯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일요일마다 가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며느리가 보기 안쓰러워서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했다. 내가 특별한 행사가 없는 주일엔 교회에 갈 수 있다고 말하니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이유는 간단했다. 한창 아무 것도 모르고 뛰어다니는 큰아이와 이제 갓 백일을 넘긴 둘째 아이를 데리고 혼자 교회에 나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인 것 같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열심히 공부하며 착실히 믿음 생활을 하는 아들 부부에게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동안 나름대로 성경을 필사하며, 틈틈이 책을 보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에 이번 기회에 다녀보기로 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지금 우리는 온갖 불의와 부패로 얼룩진 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짊어진 채 살아간다. 이렇듯 힘든 삶 속에 인생은 장기전이다. 명문대학에 진학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학 입학은 오히려 삶의 시작에 불과하듯이, 우리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봉사과 사랑에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되었다.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된 믿음 생활은 어린 손자에게서 작은 빛을 볼 수 있었다. 첫째의 유아세례 이후 나는 아이를 위해 주기도문을 외워주고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해 주었는데 아이는 그 시간을 무척 좋아했다. 아이가 자라면서 스스로 간단한 기도를 하고 틈틈이 찬양을 하면서 눈에 띄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 역시 오랜 시간 열심히 절을 다녔던 터라 마음속의 갈등이 매우 심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서서히 하나님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더불어 아직도 완강한 태도로 구원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남편 역시 손자와 손녀의 세례식에는 참여할 정도로 유아세례에 무언가 특별함을 느끼고 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이 길로 인해 심한 갈등과 고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고 시간의 흐름 속에 걸어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모든 일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는 사실 앞에 가끔은 나 자신도 많이 놀라고 있다.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과 우리 가족이 작은 것 하나에도 기쁨과 감사로 즐겁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늘 살아 계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앞으로의 삶 역시 모든 교만과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솔로몬의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건함으로 오로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주님과 하나님 되는 삶으로 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또 나만이 아닌 가족 모두가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빠른 시일 안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것이다.

김은희(성도, 19교구)

어린 양을 먹다

출애굽기 12:8~11

하갈아, 무슨 일이나?

창세기 21:17

하나님의 백성

요한계시록 21:1~7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

갈라디아서 3:1~6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6 주일

7 월요일

☐ 열왕기하 10장

8 화요일

☐ 열왕기하 11장

9 수요일

☐ 열왕기하 12장

10 목요일

☐ 열왕기하 13장

11 금요일

☐ 열왕기하 14장

12 토요일

☐ 열왕기하 15장

1

어린 양을 먹다

Feeding On The Lamb

| 초점 |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자

| 찬송 |

찬송가 232장 유월절 때가 이르러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출애굽기 12:8~11

⁽⁸⁾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⁹⁾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¹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¹¹⁾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와의 유월절이니라

주의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완전히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던 그 밤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흠뻑려진 피를 힘입어 죽음을 면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의한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안전했으며, 어린 양을 먹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까지의 사건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은 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완성하신 구속을 아름답게 예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는 이 때에 이 일의 깊은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힘을 얻기 위해서 먹었다

이스라엘인들은 힘을 얻기 위해서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출 12:8 _____

이 요리된 고기는 그들의 몸에 활력을 줄 것이었습니다. 이는 많은 어려움이 앞에 놓인 긴장 가득한 밤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으며, 출애굽 후의 여정을 견딜 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일에 있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빌 4:13 _____

요 6:51 _____

영적 능력을 위해서 먹었다

이스라엘인들은 영적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출 12:9~10

어린 양을 태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날 밤 애굽 전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은 어린 양에게 대신 내려졌습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무죄하신 구주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요 1:29

고후 5:21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절대로 희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주님의 희생을 완료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의 어떤 부분도 허비하지 마십시오.

일하기 위해서 먹었다

이스라엘인들은 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출 12:11 _____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주님이 이끄실 곳으로 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즉시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행진 명령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마 28:19~20 _____

고후 6:2 _____

※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지 써 보고, 그 명령에 대한 나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어야 합니다. 만일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약해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먹기 시작하십시오. 가장 힘든 여정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은총을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지금 주의 식탁으로 나아오십시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요 6:35 _____

고전 11:24~25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 ②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 ③ 우리의 가정이 어린 양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소서.



※ 설교 중에 받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성도님은 간증문을 써서 (주간총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tuddk85@naver.com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0장
찬송가 459장

묵/상/노/트

예후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을 죽일 계락을 세웁니다(1~5절). 예후는 아합과 가까이 지낸 사람들과 유다의 왕인 아하시야의 형제들까지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6~11절).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힘을 합해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고 바알 신당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바알의 신당을 헐고 목상들을 불살라 버립니다(18~29절). 그러나 이러한 예후도 전심으로 하나님 여호와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여 징계를 받습니다(30~36절).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색출하여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칭찬해 주셨습니다(30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바알을 섬긴 자들까지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의 가문과 바알에게 속한 자를 모두 진멸하였으면서도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여로보암의 죄에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31절).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아합 가문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일을 함으로써 교회에서 권위를 얻기 위해서입니까?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왕하 10:31)

Yet Jehu was not careful to keep the law of the LORD, the God of Israel, with all his heart. He did not turn away from the sins of Jeroboam, which he had caused Israel to commit. (2kgs. 10:31)

• 큰 제사(19절) : 아합의 여러 우상들에게도 화생 제사를 드렸다. 화생 제물은 소나 멧 같은 동물이었지만 때때로 사람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다(왕하 327)

기도제목

①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하며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② 월요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와 언약

8

유다 왕 아하시야가 예후에게 살해되자 아하시야의 어머니이며 아합의 딸인 이달라가 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녀가 바알 종교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다윗의 후손들을 진멸할 때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구해 내어 이달라의 통치 기간인 6년 동안 침실에 숨겼습니다(1~3절). 제사장 여호아다는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 백부장들을 불러 여호와와의 전에서 언약을 세웁니다(4~12절). 이달라는 요아스 왕의 대관식이 한창인 것을 보고 반역이라고 외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13~16절). 여호아다는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와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합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을 허물어 버리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17~21절).

17절을 보면 “여호아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와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고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언약의 방해꾼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언약의 중심인 예수를 사이에 두고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을 이방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아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와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왕하 11:17)

Jehoiada then made a covenant between the LORD and the king and people that they would be the LORD's people. He also made a covenant between the king and the people.(2Kgs. 11:17)

• 가리 사람(4절) : 일반적으로 ‘그렛 사람’(삼하 8:18)과 동일 민족으로 본다. 이들은 외국인 용병들로 구성된 왕실의 친위대였던 것 같다.

기도제목

① 언약을 붙들고 여호와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게 하소서. ②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산당에서 제사하며

열왕기하 12장

찬송가 254장

묵/상/노/트

요아스는 7세에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렸는데,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잘 받아들이는 동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1~3절). 요아스는 바알 신앙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 시키기 위해 먼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수리 계획은 23년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서 돈을 받지도 않고 성전 수리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4~8절). 제사장 여호야다는 헌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백성들이 여호와와의 전에 드린 은을 달아 성전 수리를 맡은 자에게 주어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기술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했습니다(9~15절).

3절을 보면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에 성전이 있음에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배만 드리면 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며 내가 죽어야 할 제사에 나 대신 제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시대의 백성들은 이러한 언약의 의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기뻐하는 곳에서 자신들 마음대로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고, 내가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며 예배가 내게 만족은 주지 못하면 불평하고, 은혜가 없다고 예배를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진정한 회개와 죄 사함의 은총을 덧입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왕하 12:2~3)
Joash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ll the years Jehoiada the priest instructed him. The high places, however, were not removed; the people continued to offer sacrifices and burn incense there.(2kgs. 12:2~3)

• 미장이(12절) : 히브리어로 ‘고대림’이다. 감독들의 지시를 받고 실제로 수리 작업을 하는 인부들을 뜻한다.

기도제목

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중심에 우리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게 하소서. ② 충현 교회에 주신 5대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기도노트

의지의 대상

10

여호아하스와 요아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고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에게까지 그 죄의 영향을 끼쳐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위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원을 얻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세라 목상을 그제 두고 살아갔습니다(5~6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승리의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자 왕은 땅을 세 번 치고 그쳤습니다. 엘리사는 이 사건으로 인해 요아스는 아람을 세 번만 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14~19절).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일어나고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요아스는 벤하닷을 세 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합니다(22~25절).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그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하는데(14절), 이는 요아스가 선지자 엘리사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에게 있어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지 막막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요아스가 죽을 병이 든 엘리사로 인해 애통해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엘리사도 결국 죽어야 할 사람에 불과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지만 영원히 살아 있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직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기에 진정 우리가 꼭 붙들만한 분이십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왕하 13:14)

Now Elisha was suffering from the illness from which he died. Jehoash king of Israel went down to see him and wept over him. "My father! My father!" he cried. "The chariots and horsemen of Israel!" (2kgs. 13:14)

기도제목

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열왕기하 13장

찬송가 456장

목/창/노/트

• 아마사와 싸운 그의 업적 (12절) : 남유다 왕 아마사는 애들을 쳐서 승리하게 되자, 교만한 마음이 생겨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북왕국의 요아스 왕은 헬세메스에서 승리를 거두고 아마사를 사로잡았다.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아마샤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요아스, 아사랴, 요담과 함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마침내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3~4절). 아마샤는 왕권이 튼튼해질 때 범죄자를 처벌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따랐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보다 나라의 왕으로서 공적인 처벌을 집행하는 데 비중을 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력 아래 있던 유다 왕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회담을 요청했다가 모욕적인 조롱을 당하고 전쟁에서 크게 졌습니다(8~14절). 포로가 된 아마샤는 백성들의 내란으로 암살을 당하고 아사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사랴 역시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행했습니다(17~29절).

3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그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중심에 죄에 대한 통회함이 있었기에 겸손히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통회함과 회개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왕하 14:3)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but not as his father David had done. In everything he followed the example of his father Joash. (2Kgs. 14:3)

• **요드엘 7절**: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었다”라는 뜻이다.

기도제목

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통회함으로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왕을 치셨으므로

12

15장의 처음과 끝에는 유다 왕들이 있고 그 중간에는 이스라엘 왕 다섯 명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아사랴(1~7절)와 요담(32~38절)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스가랴(8~12절), 살룸(13~16절), 므나헴(17~22절), 브가히야(23~26절) 그리고 베가(27~31절)가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왕인 아사랴와 요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면서 선정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상 숭배의 온상인 산당을 제하지 않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결 같이 반역으로 왕권을 탈취한 악한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패역한 이방 나라의 통치 형태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잊고 죄악 가운데 타락의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16~19절).

하나님이 산당을 제하지 않은 웃시아를 나병환자가 되게 하셨다면,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한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벌을 내리셔야 할 텐데 하나님은 왜 악을 행한 백성들은 가만히 둔 채 웃시아만 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따져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유다도, 이스라엘도 일찍이 사라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고쳐 가시는 것에 있습니다. 백성에게 돌아가야 할 저주가 왕 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심으로 백성으로 하여금 자선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백성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은총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총 속에 감격하며 보혈의 은혜로 적셔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왕하 15:5)

The LORD afflicted the king with leprosy until the day he died, and he lived in a separate house. Jotham the king's son had charge of the palace and governed the people of the land. (2Kgs. 15:5)

열왕기하 15장
찬송가 374장

목/상/노/트

• 다르사(14절) :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오므리, 세대까지 북왕국의 수도로, 세겜 동쪽, 11km 지점에 있던 매우 아름다운 성읍이었다.

기도제목

① 십자가에 달리신 한 왕이 우리 대신 죽은 것에 오늘도 감격하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믿음

+

삶

참된 기도

When we are in prosperity
our prayers come from our lips;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는 입술로 기도한다.

and therefore the Lord is forced to cast us down,
이때 주님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셔서

that our prayers may come from our hearts,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and that our senses may be awakened from the security
in which they are lying.
안일하게 잠자고 있는 우리의 의식을 깨우신다.

"Now devote your heart and soul to seeking the Lord your God."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대상 22:19).



어린 양을
먹다

출애굽기 12:8~11

하갈아,
무슨 일이냐?

창세기 21:17

하나님의
백성

요한계시록 21:1~7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

갈라디아서 3:1~6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13 주일

14 월요일

☐ 열왕기하 16장

15 화요일

☐ 열왕기하 17장

16 수요일

☐ 열왕기하 18장

17 목요일

☐ 열왕기하 19장

18 금요일

☐ 열왕기하 20장

19 토요일

☐ 열왕기하 21장

2

하갈아, 무슨 일이냐?

What Is The Matter, Hagar?

| 초점 |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자

| 찬송 |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어도

| 본문 | 창세기 21: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매우 축복받은 사람들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지만 또한 아람 국가의 아버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창 16:3~4). 사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것처럼, 하갈은 아람 국가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 15:4~6 _____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만, 사라는 자신이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하녀인 하갈을 내어줌으로써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신의 아기가 생긴 후에 하갈을 쫓아내었습니다(창 21:10).

※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쫓겨난 하갈은 자신을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몹시 울었습니다. 더군다나 물 없이 사막을 배회하였기에 더욱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녀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물으셨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자녀로 인해 비통해하는 어머니에게

자녀로 인해 비통해하는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아
이가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갈을 부르셔서 그녀의 마음의 짐
을 덜어 주셨습니다.

창 21:17

세계 도처에 자녀들의 질병, 학교 문제, 잘못된 교우 관계, 고집스런 생활 습관 등
으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려온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모진 말들을 들
으면서도 눈물을 감추어 왔고,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들을 놓고 눈물 속에 기도해
왔으며,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이들 때문에 여러 해 동안 눈물을 흘려왔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물에 관심을 가지셨듯, 우리의 눈물에도 관심을 가지
십니다.

출 2:2~4

딤후 1:4~5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니, 절대로 포기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어머니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하갈은 자기 아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창 21:18

하갈은 아들이 어렸기에 아마도 아들의 기도를 칭찬하고 격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했지만, 그 때문에 그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종종 우리도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받은 경험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며, 모든 불의에서 여러분을 구해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출 3:7

신 7:9

주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될 어머니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될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하갈은 기도했고, 믿는 법을 배웠습니다.

창 21:19 _____

그녀는 떡과 물을 준비하여 광야 여정을 시작했지만, 곧 떡과 물은 바닥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비통해 하거나 원한을 품으라고 충고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가까운 곳에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십니다. 이 영원한 공급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창 21:20~21 _____

요 7:37~38 _____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하갈은 병에 물을 채워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행동으로 응답했습니다. 생명을 지탱해 줄 물을 고통에 빠진 이 어머니는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이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 나에게 공급된 영생의 축복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 주님이 주신 생명수를 남들과 나누겠습니까?
-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까?

벧전 4:11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환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 ②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 ③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한 우리 가정, 우리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This image shows a single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14

큰 제단

열왕기하 16장

찬송가 489장

목/장/노/트

아하스 왕 때 유다의 신앙은 최악의 상태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앗수르의 배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앗수르에 충성을 다짐하며 다메섹에 가서 그곳 신앙의 영향을 받아 거꾸로 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쫓아내신 나라의 역겨운 종교 행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2~4절). 에돔과 블레셋이 유다를 침략하자(대하 28:16) 아하스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앗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7~9절). 아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지는 않았지만 제사 제도와 방법을 변경하여 여호와 신앙을 자신과 앗수르 왕을 위한 혼합 종교로 변질시켰습니다(12~18절).

앗수르의 제단을 보고 온 아하스는 큰 감명을 받아 여호와와의 제단을 헐고 다시 새로운 제단을 만듭니다. 그는 새 제단을 만들어서 기존의 제단과 교체합니다. 아하스의 이러한 행동은 신앙심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신앙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 없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신의 열심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 멋지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라한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서 마음이 떠나 세상의 풍요에 제단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와 자랑 때문에 주의 일에 열심은 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십자가에 초점을 맞출 때 갈릴리 어부들을 통하여 세계를 변화시킨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 **눅바다(17절)**: 성전 마당에 있던 큰 물탱크를 가리킨다. 이 물탱크를 뚫으로 만든 12마리의 소들이 떠받치고 있었다. 이 물탱크의 물을 물두멍에 퍼서 날랐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드니라(왕하 16:11)

So Uriah the priest built an altar in accordance with all the plans that King Ahaz had sent from Damascus and finished it before King Ahaz returned. (2kgs. 16:11)

기도제목

① 초라한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세상 것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북이스라엘 멸망의 신학적인 이유를 밝힌 데 이어 사마리아인들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끝내 돌이킬 수 없는 패역의 길에 들어선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앗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1~23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수르는 사마리아에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섞어 놓는 종교적 혼합주의를 시행했습니다. 사마리아에 정착한 열방 사람들은 사자들에게 의해 몇 사람이 죽자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의 법을 배우고 예배하며(26~28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시에 자기네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29~33절).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 종교는 관습이 되어 후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40~41절).

이스라엘은 앗수르와 애굽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두 나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호세아는 지극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대처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고 득이 될 한 나라를 선택하여 그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 속에서 말씀이 힘으로, 은혜로,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을 시급한 것으로 여길 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메시지는 공허할 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왕하 17:7)

All this took place because the Israelites had sinned against the LORD their God, who had brought them up out of Egypt from under the power of Pharaoh king of Egypt. They worshiped other gods(2kgs. 17:7)

열왕기하 17장

찬송가 322장

목/상/노/트

• 매대(6절) : '헤아람'이란 뜻이다. 차그로스 산맥 동쪽, 카스피 해 남쪽에 있는 산악국이다. 그 당시 매대도 앗수르에게 정복 당했었다.

기도제목

①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실재 앞에 영안이 열리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기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내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나

열왕기하 18장

찬송가 375장

목/창/노/트

히스기야 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1~4절). 그는 종교개혁을 철저히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랐습니다(5~6절). 그러나 얼마 후 유다가 앗수르의 엄청난 위협 앞에 절망적인 처지가 되자 히스기야는 산헤립에게 굴복의 의사를 밝히고 공물을 바치며 타협했습니다(13~16절).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하여 산당과 제단을 제거한 것을 오히려 신의 진노를 사는 잘못된 일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비판하며 백성들이 왕에게 등을 돌리도록 조롱했습니다(17~37절).

히스기야는 여러 왕들이 제하지 못했던 산당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 등 모든 우상을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모든 우상을 깨뜨리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산당이나 우상이 오랜 전통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더 대단한 것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숴버린 것에 있습니다. 이 놋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이라면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한 물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놋뱀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면서 놋뱀을 향하여 분향을 하였습니다. 놋뱀이 우상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철저히 주님을 의뢰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감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왕하 18:3)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just as his father David had done. (2kgs. 18:3)

• 세탁자의 발(17절) : 기도론 골짜기에 위치한 고대 벨라터 부근의 발을 가리킨다. 이곳도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다.

기도제목

① 보이는 세상을 힘으로 여기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의 재단들(유지, 종산, 복지)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양로원 및 함양총천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속지 말라

17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명예가 모욕당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1~4절). 앗수르 왕은 자신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9~13절). 히스기야는 앗수르에게 편지를 받고 성전에 들어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 놓고 기도합니다(14~19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며, 듣고, 보고, 행동하는 살아 계신 하나님임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만함에 가득 차 유다와 하나님을 조롱하던 랍사게와 앗수르의 운명을 예언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결과를 알려 줍니다(20~37절).

산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산헤립의 편지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속는 것이며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앗수르에게 멸망당한 성읍들도 신을 섬겼지만 그 신들이 그들을 앗수르로부터 건져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산헤립은 하나님이라는 신이 유다를 자신의 손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설명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함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앗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왕하 19:10)

"Say to Hezekiah king of Judah: Do not let the god you depend on deceive you when he says, 'Jerusalem will not be handed over to the king of Assyria.' (2kgs. 19:10)

열왕기하 19장

찬송가 393장

목/상/노/트

• **니느웨(36절)** : 앗수르 제국 최후의 수도이다. 산헤립이 수도를 코르사밧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 동쪽에 위치했으며, B.C. 612년에 메대와 갈대아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었다.

기도제목

① 세상의 그 어떤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소서. ② 십자가 묵회 컨퍼런스(2차, 6월 4일~6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자기 자랑

열왕기하 20장

찬송가 516장

목/창/노/트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1절)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위기에 빠진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명이 연장되었고, 15년을 더 통치했습니다(2~6절). 히스기야가 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징표를 구하자 하나님은 해시계의 그림자를 열 칸 뒤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11절). 그러나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의 방문에 어리석은 잘못을 범합니다. 히스기야는 장차 유다를 침공할지도 모르는 적국의 왕이 보낸 사절단을 맞으면서 왕의 공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 “장차 이 땅이 철저히 황폐해질 거라고 선언했습니다(12~21절).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냈는데 사신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히스기야의 병이 낫고 생명이 연장된 응답을 받은 후였습니다. 생명이 연장된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온갖 진귀한 것을 모두 보여주는데, 이는 자신의 힘과 부강함을 자랑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인간을 살려주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자신을 자랑하는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오늘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왕하 20:12)

At that time Merodach-Baladan son of Baladan king of Babylon sent Hezekiah letters and a gift, because he had heard of Hezekiah's illness. (2kgs. 20:12)

• 저수지와 수도(20절) : 시온 생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긴 수로와 실로암 못을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증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우상으로 범죄하게 하였도다

19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우상을 섬긴 아합을 추종하며 우상을 숭배했고, 고의적으로 신명기의 율법(신 17:3)을 깨뜨리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1~6절). 유다 백성은 자신들의 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포악한 왕 므낫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8~9절). 그들의 악은 열방보다 심했습니다(9~11절). 므낫세의 종교적인 타락은 곧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졌고(16절),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므낫세의 길을 답습하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다 왕국은 므낫세와 아몬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19~25절).

성경은 므낫세의 행위를 참으로 악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다만 우상을 세우고 섬긴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행한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점집을 찾아가거나,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안심하십니까? 우상의 심각함은 단지 형상을 만들어 절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타락의 출발점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상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며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주는 시험에 빠지기 쉬우며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갈보리에서 완성하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대(왕하 21:11)

"Manasseh king of Judah has committed these detestable sins. He has done more evil than the Amorites who preceded him and has led Judah into sin with his idols. (2kgs. 21:11)

열왕기하 21장

찬송가 400장

목/상/노/트

• **헵사배(1절)** :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이다. 이사야는 이 이름을 재건될 예루살렘 성에 붙였다.

기도제목

①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나와의 싸움에서 자신을 부인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금년 82세가 다 가기 전에 단기선교를 걱정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다. 종합검진 결과 전립선암이라고 했다. 혹시나 해서 다른 병원을 찾았으나 결과는 동일했다. 수술을 해도 후유증이 1년 정도 나타난다고 했다. 주께 간구하였다. “주여, 전립선암을 인정치 마옵소서.” 수술을 결정하고 재검을 받은 결과, 담당 선생님은 암이 사라졌다고 했다. 너무 놀랍고 기쁜 마음에 선생님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말했다. 이후 나는 곧바로 선교팀에 지원하여 훈련에 임했다. 훈련 중반에 이르자 십자가의 고난이 태산과 같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언어 암기였다. 다른 팀원들은 잘 암기하여 예정대로 나아갔다. 밤낮 심혈을 기울였으나 백지 상태로 되풀이될 뿐이었다.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다. 주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책임을 지세요”라고 간구하였다. 언어심사 시

성령의 열매



간은 조용히 다가왔다. 심사관 앞에 섰다. “선생님! 열심히 공부하였으니 떨립니다.” 어렵게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며칠 후 언어훈련을 지도하신 선생님이 전도문장을 줄이고 줄여서 나에게 적절한 선교언어 문장을 두 장으로 정리해 주셨다. 2차 선교언어심사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선교지에서 남녀노소를 접했다. 참으로 순수하고 티가 없는 백성,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세우고 복음을 경청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영혼들, 갈급하고 메마른 영혼들. 생명수를 공급하는 통로의 사역이 되기를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드린다.

최성용(은퇴집사, 3교구)

1과
어린 양을
먹다

출애굽기 12:8~11

2과
하갈아,
무슨 일이나?

창세기 21:17

3과
하나님의
백성

요한계시록 21:1~7

4과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

갈라디아서 3:1~6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에 체크하세요

20 주일

21 월요일

☐ 요한계시록 1장

22 화요일

☐ 요한계시록 2장

23 수요일

☐ 요한계시록 3장

24 목요일

☐ 요한계시록 4장

25 금요일

☐ 요한계시록 5장

26 토요일

☐ 요한계시록 6장

3

하나님의 백성

God's People

| 초점 |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자

| 찬송 |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 본문 | 요한계시록 21:1~7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
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
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
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
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
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
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
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
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
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
리라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지금,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대부분은 현재의 것들에 초점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보낼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위해 준비 중이신 집은 영원합니다. 현재의 모든 세계는 파괴되어 모든 죄의 영향력들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계 21:1~2 _____

벧후 3:7,10 _____

새 예루살렘은 모든 신자들이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기후와 인간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바다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의 놀랍고도 밝고 거룩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을 누릴 준비가 되었습니까?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구세주와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세주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계 21:3 _____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의 놀라운 동행이 시작되며, 이는 천국에서도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왕 중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집에 잠시 머무르며 그 방문으로 높이 존경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할 새 집은 의로 충만하기에 문단속이나 경찰서도 필요 없는, 최고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을 구하는 자입니까?

벧후 3:11~13 _____

※ 구세주와 함께 거할 때 어떤 점이 좋을 것 같은지 나누어 보십시오.

눈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물 없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계 21:4 / _____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인생은 아기의 울음소리에서 출발하여, 실망하고 상처받으며 유년시절을 보내고, 청장년 시기에는 꿈이 깨어지며, 마침내 노년에는 외로움과 고통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님 자신도 고통 속에서 인내하셨습니다.

사 53:3,12 _____

※ 마태복음 26:38, 요한복음 11:35, 누가복음 19:41 말씀이 공통으로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히 5:7 _____

새 예루살렘에는 슬픔이 없을 것이며, 결코 다시 울부짖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때를 고대하십니까?

사망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망으로 인한 분리됨이 없이 영원히 살 것입니다.

계 21:4 /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 죽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약 2:26)

고전 15:26

새 예루살렘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리워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대한 소식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질병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질병 없이 살 것입니다.

계 21:5~6

새롭게 된 모든 것이 악함이 없이, 강하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모든 마른 모든 사람에게 생명수를 주십니다. 우리 영원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영원히 거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게 될 것에 흥분되십니까?

믿음으로 주 예수님께 와서 영원토록 만족을 얻으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은 속히 지나갈 것이고, 또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신자가 영원한 낙원에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는 한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을 향한 유일한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고후 4:14 _____

딤후 2:10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 ②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2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1장

찬송가 85장

목/창/노/트

• **알파와 오메가(8절)** : 헬리어 알파벳 첫 자와 끝 자를 가리킨다. 알파는 'A'로, 오메가는 'Ω'로 표기된다.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한글 처음 첫 자인, 'ㄱ', 마지막 자음인 'ㅎ'으로 대변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라 함은 처음과 마지막으로서 예수께서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모든 것의 마침이심을 의미한다.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1절). 이는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9~10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내용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8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17절). 이것은 모든 우주만물과 인간의 생사 및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분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동일하게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종결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롬 11:36).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결과와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최종 모습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이 진짜인가? 앞으로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등 영적인 일들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대할 때 너무 지나치게 신비롭고, 영험하며, 기묘한 어떤 환상과 기적들로 가득 찬 것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2절)에 관한 진리들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전능한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별로 상징된 일곱 교회의 사자를 훈계하시며, 일곱 촛대로 비유된 일곱 교회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단순히 알고 지킬 것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계 1:8)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says the Lord God, “who is, and who was, and who is to come, the Almighty.” (rev. 1:8)

기도제목

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기도노트

주님의 편지 I

22

일곱 교회 중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참고 인내하는 것과 게으르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남다르게 칭찬을 받았으나(2~3절), 처음 사랑을 버리고(4절) 처음 행위로 돌이키지 않는 연약하고 죄악 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5절).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신앙의 부요함을 가졌던 교회(9절)로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부여 받습니다(10절).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발람의 교훈과 니콜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행하는 것에 관해서 상당한 책망과 권계를 받습니다(14~16절). 마지막으로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훨씬 낮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음은 칭찬 받으나, 결국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의 죄악을 저지르는 것에 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20~23절).

16세기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를 설명하면서, '가시적 교회(눈에 보이는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본문의 네 교회들처럼 부족하며, 한계가 있는 가시적 교회의 형태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이미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분명 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Do not be afraid of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I tell you, the devil will put some of you in prison to test you, and you will suffer persecution for ten days. 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rev. 2:10)

• **사제(제사장)** :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감독자(Bishop)를 지칭하나, 본문에서는 어떤 개인을 의미하기보다는 교회 전체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

기도제목

① 오직 주님의 통치와 영광과 존귀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노트

주님의 편지 II

요한계시록 3장
찬송가 236장

목/상/노/트

일곱 교회 가운데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사데 교회는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1절)라는 주님의 불호령을 받습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죽은 상태이며, 전혀 온전한 행위(2절)를 찾을 수 없는 무익한 교회 자체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8절), 나아가 인내의 말씀(10절)을 지키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16절) 교회로 스스로 부요하다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17절)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별거벗은 교회였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는 각각의 상황과 영적 수준을 짧지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일곱 교회에 공통적인 권면을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계 2:7). 이기는 자에게 허락된 놀라운 회복과 하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계 2:7, 11, 17, 26, 3:5, 12, 21). ‘이기는 자’란 말 그대로 참고 인내하며 싸워서 극복하여 정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며, 아래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투쟁하고 분투하며 전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현대교회는 세상과는 타협하고, 하나님과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둔 채 영적 나태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강직한 믿음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

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the right to sit with me on my throne, just as I overcame and sat down with my Father on his throne. (rev. 3:21)

· **징계하노니(19절)** : 헬라어 ‘파이다온’에서 유래된 단어로 어린 아이를 교육하고 교정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본래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교육적 도구’의 한 방편임을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항상 믿음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총천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양로원 및 함양총천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보좌에 앉으신 이

24

계시록만이 지니고 있는 상당히 신비롭고 상징적인 의미와 용어들로 가득 찬 내용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분이 앉으신 보좌 둘레에는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가 놓여 있습니다(3절). 그 보좌 주위에는 이십사 보좌와 그 위에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쓴 이십사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4절). 동시에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렛소리가 퍼져 나가고 있으며, 그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놓여 있습니다(5절).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와 네 생물이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찬양과 영광을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돌리고 있습니다(6~9절). 이십사 장로는 자신들의 머리에 쓴 관을 그 보좌 앞에 드리며 동일하게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10~11절).

보좌에 앉으신 분은 분명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집중하도록 이끅니다. 이 말씀에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가득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용어의 개념들을 찾아내고자 하였으나 그것의 의미의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좌에 앉으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모든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보좌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한 분,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온전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려야 할 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계 4:11)

"You are worthy, our Lord and God,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for you created all things, and by your will they were created and have their being."(rev.4:11)

요한계시록 4장

찬송가 67장

목/상/노/트

· 네 생물(6절) : 초대교회의 신학자들은 대체로 네 생물(사자, 사람, 소, 독수리)을 사복음서와 연관하여 생각하곤 하였다. 특히 어거스틴(Augustine)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사자', 마가복음은 인자이신 그리스도로서의 '사람', 누가복음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제물로서의 '소',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적 영광을 높이는 의미로서 '독수리'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기도제목

① 우리의 전 인생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노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5장

찬송가 82장

목/상/노/트

속죄주이시고 심판의 실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인봉한 두루마리 책을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취하시는 장면(1~7절)과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8~10절), 그리고 모든 천사들(11~12절)과 만물들(13~14절)로부터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장의 중심은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 그리고 모든 천사와 만물들로부터 찬미와 경배,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8~14절)에 있습니다. 이 경배와 찬양이야말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봉한 두루마리 책을 열어 세상의 구속을 완성하시며 모든 역사를 종결시키신다는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와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서 천지창조에 관여하셨고, 구속 주로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마지막 때 심판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포함하여 모든 우주적 심판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존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를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어린 양으로 비유되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죽음 당함을 의미합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는 어린 양은 어린 양일 수 없으며, 그리스도일 수도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아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별명이며, 그분의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죽음 당하신 어린 양보다, 축복과 번영, 잘됨과 행통을 가져다주는 요술 램프에 나오는 거인을 그리스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계 5:12)

In a loud voice they sang: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to receive power and wealth and wisdom and strength and honor and glory and praise!"(rev.5:12)

· 두루마리(1절) : 헬리어로 '비블리온'인데, 단순히 '책'이라고도 번역 가능하다.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이 세상에 대한 심판, 그리고 성도의 최종적인 심급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기도제목

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찬양하고 주님만을 기꺼이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② 모든 교구와 부서, 각 위원회가 십자가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복음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인 중 여섯 개의 인을 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는 장면(1~8절)에서는 네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에게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네 말과 병거의 환상(슥 6:1~8)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섯째 인을 떼는 장면(9~11절)에서는 복음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탄원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 여섯째 인을 떼는 장면(12~17절)은 여섯째 인의 재앙으로 인해 압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고하는 우주적 변동에 관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15~16절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사탄과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자'임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며, '진노의 날' (17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실재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분명하고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것임을 외쳤던 롯의 권면을 농담으로 여겼던 그의 사위들처럼(창 19:14) 상당히 느긋하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막연한 장밋빛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은 우리에게 일곱 인이 떼어지는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진노가 시작될 것임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실천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 6:16~17)
They called to the mountains and the rocks, "Fall on us and hide us from the face of him who sits on the throne and from the wrath of the Lamb! For the great day of their wrath has come, and who can stand?"(rev.6:16~17)

요한계시록 6장
찬송가 243장

목/상/노/트

• **흰 말(2절)**: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승리를 거두며 활발하게 전파되어 결국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이다.

기도제목

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핍박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지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십자가의 은총, 성령의 바람



오순절에 대한 설명은 레위기 23:15~22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34:22과 신명기 16:10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서로 비교하여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무교절이 지난 후, 50일 만에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인 이 날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이 날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의 심령에 보혈이 충만하여졌고 술 취한 사람이라 오해할 정도로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행 2:13).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직행할 수 없습니다. 사순절과 부활절이 있기에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기도와 열정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흔적이 있어야만 성령님은 임재하십니다(골 3:5). 2,000년 전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지금도 보혈의 흔적이 있는 믿음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성령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Tip. 오순절

의미

'오순절'은 신약에서만 사용된 명칭이다(행 2:1, 20:16 : 고전 16:8). 구약에서는 오순절 대신에 '추수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히브리어로는 '각 하카칠'이다. '각'은 축제일이며, '하카칠'은 '하'라는 정관사 '그'(the)와 '카칠'('벤다, 획득하다, 수확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열매를 거둬, 추수함'이라는 명사로 된 것이다. 이 단어는 곡식이 익어 거두고 수확하는 것을 나타낸

다. 특별히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를 말한다. 그러므로 구약의 맥추절(추수절)은 첫 곡식을 거두는 절기이지만, 신약의 오순절은 절기로 보아 첫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때이다. 영적으로 신령한 첫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때인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로 천국의 곡식을 거두어 지상의 교회에 들이는 절기이다.

유래

출애굽기 34:22을 보면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라 말씀한다. 또한 신명기 16:9~11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다. 무교절 때에 초실절, 즉 처음 익은 이삭을 거두어 하나님께 요제(제물을 흔들어 드리는 제사 방법)로 드린 후에 7주를 계수하게 되었다(1주간이 7일이므로 거기에 다시 7주간을 곱하니 49일이 된다). 그 49일이 지난 다음날이 50일이 되는데 이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축복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게 되었다. 그 예물은 맥추감사 예물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3:16에 '맥추절'이라고 호칭하게 되었다. 이 절기는 유월절을 지나 50일 만에 지키게 되었기에 오순절(순=10일)이 된다.

오순절은 초실절, 즉 맥추절의 신약적인 명칭이다.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의 오순절로 개명되기까지는 1,500년의 역사가 흘러갔으나 그 기간 중 B.C. 400년까지는 이 맥추절이 오순절로 된 증거가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신약의 오순절이 구약의 맥추절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오순절이 영적인 면에서 성취된 것은 사도행전 2:1에서이다. 오순절은 초대 교회의 성령강림으로 완성되었다. 그 성령 강림으로 초대 성도들이 변화되고 능력을 받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결과 이것이 후대 교회에 유명하여졌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성령강림절이다.

매일 성경, 매일 예수	
읽으신 후 ☐ 에 체크하세요	
27	주일
28	월요일 ☐ 요한계시록 7장
29	화요일 ☐ 요한계시록 8장
30	수요일 ☐ 요한계시록 9장
31	목요일 ☐ 요한계시록 10장
1	금요일 ☐ 열왕기하 22장
2	토요일 ☐ 열왕기하 23장

4

성령과 그리스도인의 삶

The Holy Spirit And The Christian Life

| 초점 |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 찬송 |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 본문 | 갈라디아서 3:1~6

⁽¹⁾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찌더냐

⁽²⁾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³⁾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⁴⁾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⁵⁾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⁶⁾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의 제 삼위입니다. 성령님의 지·정·의는 신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줍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딤후 3:5). 성령님은 모든 신자 안에 거하시며 신자들에게 세례를 주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모든 신자가 구원받도록 인치십니다.

고전 6:19 _____

고전 12:13 _____

엡 4:30 _____

성령님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교화하시고, 준비시키시며,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 없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신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

성령님의 임재는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갈 3:1~2 _____

갈라디아에서의 바울의 선교사역 이후, 갈라디아 교회들은 새로운 삶을 전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모든 신자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율법이 아닌, 성령님으로 성화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롬 10:4 _____

성령님은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여러분에게 오시며, 여러분의 믿음을 매일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살아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 디모데후서 3:16, 베드로후서 1:21, 요한복음 14:26 말씀이 전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내적 싸움을 일으킨다

성령님의 임재는 내적 싸움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님을 영접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갈 3:3~4

하나님과의 교제로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진 우리의 새로운 본성은 악한 것과 사탄에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의 교회들은 성령님 없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걸음마다 성령님께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육신과 육신의 사역에 맞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 다음의 말씀의 핵심 단락이나 단어를 써 보십시오.

갈 5:17

엡 6:12

딤후 4:7

고전 9:27

롬 7:15,20,24~25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님께 항복함으로써 우리의 새 본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때 승리하게 됩니다(갈 5:16,24).

성령의 열매

성령님의 임재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인 믿음의 사람들로서 특별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갈 3:5~6 _____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맺기 원하시는 열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 성령의 열매를 그 성격에 따라 세 부류로 구분해 보십시오.

1. _____
2. _____
3. _____

계 2:7 _____

오늘은 성령강림주일로서, 모든 신자들에게 첫 번째로 임하신 성령님을 교회가 특별히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서 맺고 계시는 결실은 무엇입니까? 자신보다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항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해지고 있습니까? 매일의 영적인 씨름을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까? 더욱더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도 바울처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십시오.

갈 2:20 _____

마 16:24 _____

| 믿음의 기도 |

- 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 ②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 ③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구역(팀)이 되게 하소서.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In the bottom right corner, there is a small, stylized illustration of a tulip flower. The flower is light purple or lavender in color and has several petals visible. It appears to be part of a decorative border or a watermark.

※ 〈총현의 만나〉를 통해 매일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주간총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 552-8200(☎ 342, 348) / E-mail, luddk85@naver.com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

요한계시록 7장

찬송가 343장

목/상/노/트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누가 그 큰 환난 중에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10절)라 말씀합니다. 7장에서는 큰 환난 중에도 배교치 아니하고 인내함으로 영광을 얻게 되는 ‘144,000명’(1~8절)과 ‘흰 옷을 입은 무리’(9~14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분명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얻은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환난의 중함은 결코 참된 신자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 큰 환난과 고난, 시련과 연단이 끊임없이 믿음의 신자들에게 몰릴 듯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참된 소망과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비견될 수 없는 확실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심어린 마음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정적인 순종에도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곧 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확실성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며, 확고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종말의 환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계 7:10)
And they cried out in a loud voice: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who sits on the throne, and to the Lamb." (rev. 7:10)

•인침을 받은 자 십사만 사천 명(4절): 이 숫자에 관해서는 다음 세 가지 학설이 있다. 첫째, '순교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킨다는 것과, 둘째,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 수를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징적인 수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완성된 영적 교회'를 암시한다는 것이다. 대체로 마지막 견해가 보다 성경적 입장이라고 본다.

기도제목

① 세상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 전도하며, 교회 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기도노트

일곱 나팔

29

일곱째 인을 때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6장에서 시작된 일곱인의 결말이기도 하나, 일곱째 인을 떼면서 다시금 일곱 나팔이 시작하며 더욱 확장되고 심화된 재앙의 서막이 올립니다.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은 8장에서부터 14장에 걸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장면이 묘사되는데(3~5절),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일곱 나팔의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 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의 심판에는 악인에 대한 징벌과 성도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팔에서 시작되어 넷째 나팔까지를 이야기하며,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려줌과 동시에 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팔은 분명한 경고를 암시합니다. 죄인에 대한 경고이고 악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통보입니다. 무언가 일이 시작될 때 울려 퍼지는 나팔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나팔의 징후가 재앙이고 심판의 시작이라면 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점점 조여 오는 심판의 울가미가 우리의 인생 앞에 닥쳐 올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3~5절에서 확인하였듯이 택하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도하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며,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분의 은혜로우신 마음의 표현입니다. 일곱 나팔은 이렇듯 각각 다른 양 날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위에서 있습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가다 땅에 쏟으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계 8:5)
Then the angel took the censer, filled it with fire from the altar, and hurled it on the earth; and there came peals of thunder, rumblings, flashes of lightning and an earthquake.(rev.8:5)

요한계시록 8장

찬송가 180장

목/창/노/트

•썩(11절) : 이것은 팔레스틴 지방에서 발견되는 아주 지독하게 쓴 다년생 '물'로서, 본문에서는 인간의 고통과 번민, 영적 파멸을 가져다주는 심각한 재난으로 암시되고 있다.

기도제목

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언제나 위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가선교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계속되는 나팔의 재앙

요한계시록 9장

찬송가 276장

목/상/노/트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엄청난 재앙이 몰려옵니다.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은 앞서 나타난 나팔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살벌한 재앙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 재앙은 자연계에, 둘째는 바다와 물고기, 셋째는 물, 넷째는 일월성신에 재앙의 범위가 국한되었다면 이제 시작되는 다섯째 나팔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또한 여섯째 나팔은 인간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재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처음 네 번의 나팔 또한 매우 가혹하고 힘든 환난이며 재앙이었음에 틀림없으나, 그것들은 인간 자체에게는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나팔들은 보다 더 진보된 재앙으로서 인간 자체를 파멸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9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지속적인 범죄와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역사적으로 우리 앞에 분명한 실존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심을 재앙의 점진적 과정을 통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공생애 시작 즈음에 외치셨던 말씀은 진정한 전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우리 앞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파하리로대(계 9:6)
During those days men will seek death, but will not find it; they will long to die, but death will elude them.(rev.9:6)

•아볼루온(11절) : 멸망하는 자, 파괴하는 자란 뜻을 지니고 있으며, 고대 헬라 시대에는 아볼루 신이나 황제들을 빔대어 사용하기도 했다. 황제들의 임금, 곧 '목재왕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자로서 타락한 천사를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진노의 심판 아래 녹아 없어질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그것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총현교회의 재단들유지, 동산, 복지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영로원 및 함양총현농원 개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작은 두루마리

31

원래 순서적으로 보면 일곱째 나팔이 불려져 재앙이 도래해야 하는데, 그에 앞서 힌센 천사와 작은 두루마리 환상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작은 두루마리 환상은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있기에 앞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는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 일곱째 인이 떼어져야 하는데도, 갑작스럽게 144,000명의 환상이 등장하는 경우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습니다. 작은 책을 가진 힌센 천사의 등장(1~7절)과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서 작은 책을 받아먹는 장면(8~11절)이 서술됩니다. 힌센 천사의 등장은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속히 임할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며(7절), 작은 책을 받아먹은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 이 예언의 말씀이 세상에 분명히 전해져야 함을 암시해 줍니다(8~13절).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마지막 때의 심판과 재앙을 살피고 있습니다. 매 장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확실성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지막 때의 재앙을 생각할 때 막연히 이해하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분명히 마지막 때는 실재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사실을 당시의 시대와 역사 앞에 토해 냈습니다. 우리는 매번 주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아무런 반응 없이 들곤 합니다. 물론 잊을 수도 있고, 별 감동 없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실은 종말(심판)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는 달리 마지막 때의 심판과 재앙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으며 진리인 복음을 증언하기 원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갓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계 10:9)

So I went to the angel and asked him to give me the little scroll. He said to me, "Take it and eat it. It will turn your stomach sour, but in your mouth it will be as sweet as honey." (rev. 10:9)

요한계시록 10장

찬송가 515장

목/창/노/트

· **비밀(7절)**: 헬라어로 '뒤스 테리온'으로 '천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일부는 나타나고 일부는 감추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가리킨다.

기도제목

①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를 무의미하게 허비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2차, 6월 4일~6일)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소서.

기도노트



**2nd The Cross
Ministry Conference**

제2차 전국 목회자 초청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 상 현직 담임목회자 및 사모

일 시 2012. 6. 4(월)~6(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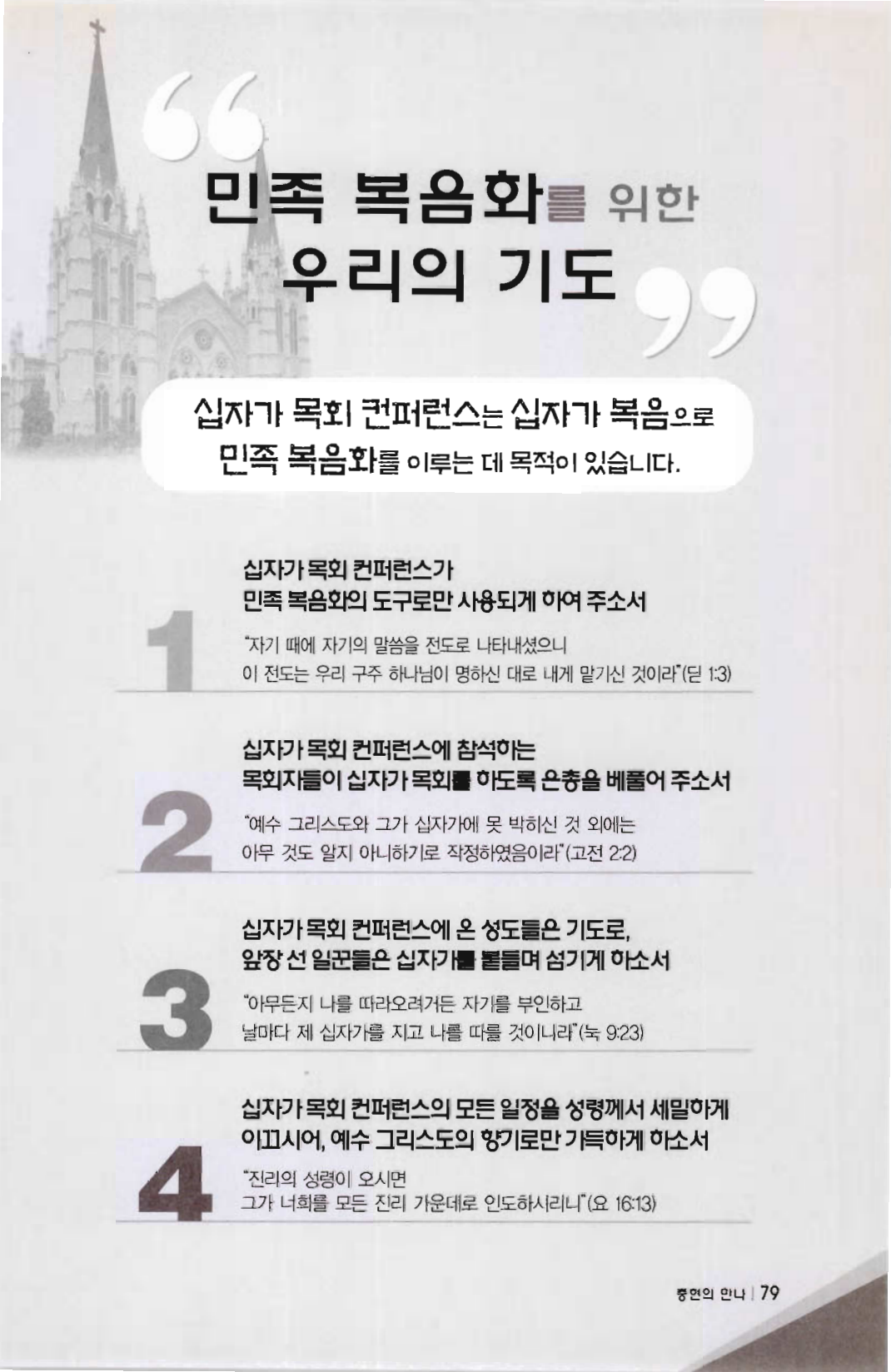
장 소 충현기도원(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18-2번지)

등록안내 참가비 : 전액 무료(숙식 · 교재 제공)

준비물 : 성경 · 필기구 · 세면도구 · 운동복 · 운동화

문 의 02-557-0001 · 02-552-8200

주 관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집사회 · 권사회



“민족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기도”

십자가 목회 컨퍼런스는 십자가 복음으로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십자가목회 컨퍼런스가
민족 복음화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소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딤후 1:3)

2 십자가목회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목회자들이 십자가목회를 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3 십자가목회 컨퍼런스에 온 성도들은 기도로,
앞장 선 일꾼들은 십자가를 붙들며 섬기게 하소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4 십자가목회 컨퍼런스의 모든 일정을 성령께서 세밀하게
이끄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가득하게 하소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요 16:13)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2년 5월

Copyright© 2012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박만복 문성수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